

AUTHOR 박도호

TITLE 화란에서의 예배

IN 월간고신

73호 (10, 1987): 25-29.

두 포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가진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난다.

교회의 예배설교를 정규 신학훈련을 마친 자격자(강도사)와 그 이상자들에게만 엄격히 허용되어야 한다. 미 조직 교회를 위해서는 당회장의 엄격한 관리하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바로 정확하게 전해져야 교회가 능력을 가지게 된다. 간중, 강연, 연설 등과는 분명한 구분을 지어야 한다. 목사의 개인 경험담, 구수한 예화, 느낀 소감, 견해, 철학, 사상 등이 아무리 훌륭하고, 교인들의 호응을 받는다고 해도, 성경 본문의 사상과 내용에 무관한 것일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다.

#### 4. 찬송과 기도

개혁 교회의 예배 찬송은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가사로 되어 있음이 특이하다. 시편 150편을 곡에 맞춘 작시와 그외 신·구약 성경의 찬송 부분(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 부분)을 담고 있다. 또한 누가복음 초두의 메시야 오심에 대한 기쁨의 노래들, 즉 마리아의 노래(1:46-55), 사가랴의 노래(1:67-79), 천군 천사의 노래(2)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혁 교회가 지금도 예배용 찬송을 주로 시편 150편을 곡에 맞추어 부르고 있는 것은 의미 심장하다. 마르틴·루터가 종교개혁의 행동을 단행하기 전, 그는 시편 강해를 끝냈던 것이다. 그는 그 방대한 시편의 내용에서 위대하신, 전지 전능

하신 하나님 자신과 그에 비하여 너무나 초라한 죄인인 자신을 보고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터져나왔던 것이다. 예배중의 찬송은 죄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다. 예배중의 찬송은 '노래로 된 기도'(song prayer)요, 예배중의 기도는 '말로 된 기도'(spoken prayer)다. 어떻게 보면 지나친 일인것 같으나, 개혁 교회에서는 '성가대'가 없고 '성가대의 찬양' 순서도 없다(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예배를 순수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겠다는 조심성의 한 표현이다. 인간적 요소를 극히 조심하며 피하고 있다. 또한 '찬송중의 찬송'을 배제하려는 태도 그 의도가 있다. 공중 예배자의 찬송(찬양)과 '성가대'의 '찬양'에 어떤 구분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차츰 '성가대의 찬양'은 교인들을 의식한 '인간(교인)을 위한 찬양'이 될 위험성이 있음은 사실이다.

#### 맺는 말

이제, 결론으로 에베소서 5:26-27의 말씀을 인용하고자 한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 화란에서의 예배



박도호

미국 하버드와 화란의 캠퍼를 졸업했다. 네덜란드 자유개혁교회 목사로서 현재 고신대학 신대원에서 가르치고 있다.

**화란** 개혁교회(De Gereformeerde Kerken in Nederland)는 칼빈주의적 전통을 보전하고자 하는 교회이다.

16세기부터 지금까지 화란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슬로건인 "Sola Scriptura"(오직 성경), "Sola fide"(오직 믿음), 그리고 "Sola gratia"(오직 은혜)로 표현된 신앙을 굳게 갖고 선포할 마음이 있다. 한국 장로교회(고신파)는 화란교회와 자매교회인데 우리는 현대교회가 발전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서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회 생활의 여러 국면 가운데 하나는 예배이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배는 어느 목표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 과거의 역사와 현대의 요구를 참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 예배를 드리는 목표

너무 쉬운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교회 예배의 목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첫째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배때 성도들은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하는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커다란 힘과 은총을 찬양할 수 있느냐?"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칼빈이 16세기에 발견한 대로 모든 우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주일날에 우리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위대함을 알려주는 기회가 있다(시편 149 편을 보자).

두번째의 목표는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엡 4:12). 기도, 찬송, 설교, 헌금, 축도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생활을 더욱 더 향상시켜야 한다. 물론 불신자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고 중생을 받을 수 있지만 예배의 특징은 신자들

세우는 모임인 것이다.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써 그는 그의 백성을 먹이시고 성장시키시는 아버지와 목자로 보이신다.

### 그 예배의 내용은

예배의 내용에 관해서 고찰할 때 16세기 때에 종교 개혁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말이 예배차원에서 적용되었다. 루터와 칼빈에 의하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며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다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개혁주의적 예배는 말씀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적으로 개혁교회의 예배에는 발전이 있었다. 처음에는 루터는 “미사”에 초점을 맞추고 로마 카톨릭 예배의 형태를 많이 유지했다. 그러나 1530년대에 특히 스위스와 스트라스부르에서 예배를 단 순화하고 로마 카톨릭적인 요소를 제거하려는 운동이 있었다.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 머무는 동안(1538-41) 그는 마틴 부셔(Martin Bucer)가 교회 예배를 어떻게 형성해 놓았는지를 보았으며 칼빈이 1541년에 제네바로 돌아왔을 때 그가 스트라스부르에서 본 방식은 제네바에서의 교회 예배의 모범이 되었다. 제네바에서의 모범은 화란을 포함하여 유럽에 있는 다른 모든 개혁교회에 확산되었다.

물론 모든 나라의 교유의 발전에 따르

루터와 칼빈에 의하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며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다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

면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개혁교회 예배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다(먼저 아침 예배를 살펴본다).

① 목사에 의한 개회 헌사, 주로 시편 124 : 8 :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와 이름에 있도다.”

② 목사에 의한 축복의 인사, 주로 고전 1 : 3 :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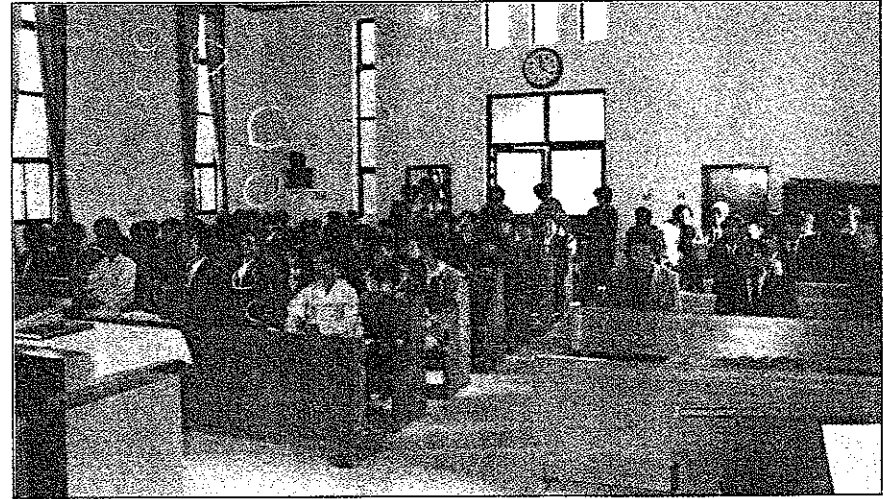
③ 응답의 시편(개혁교회에서는 시편이 일반적인 노래이다). 회중에 의해 불러짐. (우리는 개혁교회에서는 성가대가 대개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회중은 노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④ 목사에 의한 십계명의 낭독(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

⑤ 응답하는 시편

⑥ 성경 낭독, 때로 다른 시편이 따라서 불러짐.

⑦ 목사의 기도(죄의 고백, 용서의 간청과 성령에 의한 재생과 조명의 간구, 그리고 특별한 요구)



⑧ 예물의 수집

⑨ 시편

⑩ 설교를 위한 본문의 낭독

⑪ 설교, 종종 시편(아멘)이 따라 불러짐

⑫ 목사의 감사기도

⑬ 결론적인 시편

⑭ 축도로 종종 민수기(6 : 24-26)를 사용한다.

“여호와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 얼굴로 내게 비취사 은혜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개혁주의 예배 가운데서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는 언제나 설교 후에 이루어졌다. 네덜란드에서 오후 예배 때는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조요리문답을 설명하고 있다. 또 오후 예배 때는 십계명 대신에

사도신경을 회중이 고백하고 있다.

16세기부터 지금까지 화란 교회안에서 이러한 예배 순서를 사용한다. 우리가 본 대로 개혁교회의 예배와 로마미사를 비교할 때 말씀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중세 때는 항상 미사가 라틴어로 진행되어서 일반 사람들은 예배의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었다. 미사에 있어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육신과 피로 변화한다는 신비주의적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종교개혁예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는 말씀이 가장 중대한 것이 된다.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알려주기 위하여 개혁주의 목사들은 라틴어가 아닌 모국어로 분명하게 설교할 마음이 있었다.

개혁주의의 예배의 가장 깊은 핵심은 하나님 말씀의 선포였다. 하지만 설교뿐만 아니라 예배의 모든 요소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예를 들

면 설교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도 하나님 말씀, 즉 시편으로 즉,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표현할 수 있다. 또 세례를 베풀 때 우리는 유아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신비주의적 라틴어로 하는 말이 아니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성경에 있는 성찬의 의미를 잘 알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는 하나님 말씀의 지배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다.

현재 네덜란드 교회의 예배를 살펴볼 때 우리 한국 교회와 깊은 일치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는 네덜란드 교회와 한국 교회가 서로 다르다.

몇몇 차이점을 언급해 보겠다. 첫째는 이미 말한대로 화란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회중이 주로 시편을 부르는 방법이 있다. 작년(1986)에 시편의 새 번역집이 출판되었다. 한국교회에서는 주로 시편을 부르지 않고 찬송을 부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는 예배 때 화란교회 안에서 특별한 성가대가 없고 모든 회중이 한 멜로디로 시편을 부르고 있다. 이 멜로디는 원래 제네바에서 칼빈시대에 온 것이다. 세째는 화란교회에서는 목사가 모든 예배 순서를 맡아서 한다. 후시 이점에 있어서 네덜란드 교회는 한국 자매 교회 한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지 않

화란교회는 아기가 태어난 두 주일 이내에 유아세례를 행하고, 성찬식의 잔은 각각에게 작은 잔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큰 잔 하나를 돌려가며 사용하는데 그때엔 포도주를 사용한다.

을까 한다. 예를 들면 화란교회에서도 장로가 예배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제는 성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다. 우리 화란 교회에서는 아기가 태어날 때 대개 두 주일 이내에 그에게 유아세례를 행하는 방식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고백과 기도문에 따라서 신자의 자녀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에 속해 있는 자녀로 여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날 때 곧 언약의 표지, 즉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한국 교회와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성찬에 대해서 생각할 때 화란 교회에서는 해마다 성찬을 시행하는 것이 4 번이 있다. 우리가 화란에서 성찬에 참여할 때 방법에서도 한국 교회와는 차이점이 있는데 화란에서는 설교단 앞에 큰 테이블을 두고 회중들을 나누어서 순서대로 앞에 나오게 하여 테이블에 둘러앉아 성찬을 시행하게 된다. 또 각각에게 작은 잔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큰 잔 하나를 모두 같이 돌려가며 사용하게 되는데 그 때엔 포도주를 사용한다.

음악에 대해서 생각할 때, 화란교회에 서는 교회들이 거의 다 오르간을 가지고 있고 시편을 반주하고 예배 후에도 특별한 오르간 음악을 들을 수가 있다.

화란 교회의 예배의 특별한 성격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신학적인 해석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별히 1952년에 죽었던 클라우스 스킬더(Klaas Schilder)는 예배에 대해서 아주 깊고 성경적으로 저서를 출판하였다. 스킬더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에 의하여 모여지고 있는 단체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교회가 회중으로 모임 때마다 이 모임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고려할 때 하나님의 주권 뿐 아니라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함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예배 때는 함부로 예배에 아무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를 따르는 사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한 회중으로 하나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약속을 듣고 그런 예배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깊은 의미를 기억하고 그의 살아 계시는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성찬예배에 한 교회로 참여를 한다. 스킬더는 예배 때

화란교회는 개교회 예배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배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 모임이다.

의 교회가 하나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었다. 이 하나되는 것이 볼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역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말했다. 그래서 스킬더에게 있어서 예배의 의미는 교회론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으로 해석하였던 것이다.

**맺는 말**

결론적으로 16세기부터 지금까지 화란 교회에서는 개교회 예배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예배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 모임이다. 이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배해야 할 것이다. 그 예배의 여러가지 요소에 있어서 그 말씀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 그 말씀 아래 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승리로 그의 백성이 하나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화란교회는 예배를 이해하고 있고 예배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